

원칙

정 범 진

제주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

인 생을 하나의 원칙으로 살아간다면 삶은 비교적 단순하다. 옳고 그름은 하나의 원칙에 의해 지배되고 모든 세상 살이는 하나의 잣대로 평가된다. 복잡할 것이란 없다.

그러나 원칙이 여럿이 되면 이제는 좀 머리가 복잡해진다. 대부분의 원칙은 실제적 적용에 있어서 양립되기보다는 상충하는 경우가 많다.

관공서에서는 흔히 원칙이라는 말을 남발한다. '이번 인사의 원칙은...' 류의 말은 뭔가 이상하다. 원칙이라는 표현은 보다 삶의 전반을 관통하는 보다 일관되고 보편 타당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이때의 원칙은 '방침' 정도로 바뀌는 것이 좋겠다. 정부의 권위 그리고 다른 정부와의 상관 관계를 고려한다면 보다 강력한 표현을 필요로 했겠지만 말이다.

환경을 보존하자고 하면 부인할 사람은 없다. 그것은 원칙에 해당한다. 그러나 '인간의 복리와 편의의 증진'이라는 새로운 원칙을 부과하면 조금 복잡해진다. 두 가지 원칙을 동시에 만족시키

는 어떤 선을 그어야만 하는 것이다.

원칙의 차원에서는 비판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원칙과 원칙의 사이에 타협점을 놓고는 무한한 논쟁이 가능하다. 원칙과 원칙 사이에는 이론적으로 무한한 타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어느 한 가지 원칙만을 고수하는 사람에게는 그 원칙을 제외한 모든 타협점이 불만족스러울 것이다.

노루와 멧돼지의 개체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이 농사를 망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생태계가 균형적으로 보존되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천적이 없어서 멧돼지와 노루가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니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할 것이다. 이번에는 천적이 필요하다. 그러면 늑대도 있어야 하고 호랑이도 있어야 할 것이다.

환경 보존이 잘 되어서 출근길에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 퇴근길에 늑대도 만나고 또 호랑이가 어린아이를 물어갔다는 뉴스도 빈번히 나오는 것이 아마도 원칙에 충실한(!) 환경 보존일 것이다.

지당하신 말씀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통상 우리는 이들에 대해서 대안이 없는 비판만 한다고 불평하지만
실은 대안 없는 비판만 하는 수준도 아니다. 잣대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을 재는 사람들일 뿐이다.
그 하나의 원칙에 동의하는 순간, 누구도 이들의 그물을 벗어나기 어렵다.
다만 불행히도 이들이 다른 원칙을 받아들일 자세와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원칙은 중요하다. 그러나 타협되지 않는 원칙은 위험하다.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다른 원칙과 blend하여서 두 원칙 가운데 선을 긋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때로는 원칙론자가 관리자로 등극한다.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 하나의 원칙만을 주장하고 고수하는 사람은 관리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지당하신 말씀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통상 우리는 이들에 대해서 대안이 없는 비판만 한다고 불평하지만 실은 대안 없는 비판만 하는 수준도 아니다. 잣대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을 재는 사람들일 뿐이다.

그 하나의 원칙에 동의하는 순간, 누구도 이들의 그물을 벗어나기 어렵다. 다만 불행히도 이들이 다른 원칙을 받아들일 자세와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작은 정부, 거버닝에서 거버넌스로의 진전은 건전한 기업과 NGO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NGO가 원칙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의 거룩한 원칙론이 걸러

들을 능력이 없는 대중과 대중 매체에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소위 '대세'가 되고 있다는 현실이다. 게다가 우리는 선불리 원칙을 비판하려는 우를 저질러 패배의 기록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도롱뇽을 보호하자는 원칙을 누가 비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해도 좋다는 사고 방식을 비판해야지. 할 수만 있다면 '상생(相生)'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할 수 없다면 '상생'은 '공멸(共滅)'이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타협점을 제공하지 않는 상생의 주장은 현실 안주를 의미하고 공멸을 의미한다.

'순수', '녹색', '청결', '자연주의'와 같은 19세기 생태학자들의 주장은 인류가 꿈꾸는 이상향을 노래하는 듯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순수 독일주의', '잡혼 금지', '유태인 학살', '나치즘 옹호'의 철학적 토대가 되기도 하였다.

원칙은 중요하다. 그러나 타협되지 않는 원칙은 위험하다. ☉